

## 포럼교류 동북아번영평화추진

호끼이도 아사히카와시 부시장  
나카야 토시오(中屋 利夫)

### 1. 아사히카와 시의 개요와 자매도시

#### (1) 아사히카와 시의 개요와 특징

- 아사히카와 시는 일본 4 대 도성 중 최북단에 있는 북해도 중부에 있으며 북해도의 지붕이라는 대설연봉을 등지고 있고 석수천과 기타 지류를 마주하고 있어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사계절 경관이 아름답다.  
(면적 747.6K m<sup>2</sup> 인구 약 36 만 명)
- 산업방면으로는 이름난 쌀 생산지로 유명한 전국농업, 가구, 제지, 펄프, 식품가공 등 제조업과 편리한 교통이 도매업의 발전을 추진하여 교육, 문화, 의료 등 각종 도시기능이 갖추어진 북해도 중심도시이다.

#### (2) 아사히카와 시의 자매도시 4국 5시

- 미국 일리노이주 블루밍시 (1962년 10월 11일 결연)
- 러시아 연방 사할린 주 유주노·사할린스크시 (1967년 11월 10일 결연)
- 미국 일리노이주 노마시 (1985년 7월 7일 결연)
- 한국 경기도 수원시 (1989년 10월 17일 결연)
-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(1995년 11월 21일 결연)

### 2. 아사히카와시의 국제교류

#### (1) 아사히카와시의 국제교류사업

- 아사히카와시의 국제교류과제는 자매도시 간의 교류사업을 대폭 추

진하는 것 외에도 본시의 문화, 사회, 경제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본시의 국제교류단체와 하나가 되어 국제교류 방면의 인재와 단체 교육에 노력하여 국제지식강좌, 외국인자문창구를 설립하여 시민과 외국국적 시민에게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.

- 동시에 시에서 제공,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을 이용하여 “아사히카와시 국제교류활동기금”을 창설하여 계획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한다.

#### (2) 아사히카와시 국제교류위원회

- 아사히카와시국제교류위원회는 아사히카와시 국제교류 기금의 운영 수익과 아사히카와시 부담활동경비를 주요 자금출처로 삼아 적극적으로 각계 시민을 주체로 한 다방면 국제교류를 전개하여 우호친선 활동 인재와 단체의 교육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원활동을 돋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잡지의 발행 등 각 항목의 국제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.
- 국제자원활동 전개 (통역·민박·계획교류·편집)
- 외국어강좌개최 (한국어·러시아어·중국어·일어·영어초급)
- 연수회, 강연회 및 외국인과의 교류 등의 활동 개최

#### (3) 국제협력추진

- 아사히카와시는 1명의 JICA (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 기구) 의 추진원을 배치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JICA 청년 자원자를 초청하여 민간기술협력 등의 세계평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기획을 전개하고 있다.

#### (4) 국제적인 대형행사 개최

- 세계얼음조각대회 (1971년 부터 매년 개최)
- 일본 파사스키제 (1981년부터 매년 개최)
- 스키보드월드컵 대회 (1999년, 2001년 2회 개최)
- 국제가구설계제 (1990년 부터 3년마다 한번 개최)

#### (5) 아사히카와 공항 국제화

- 아사히카와의 첫 국제정기노선 (한국인천공항까지, 매주 4회) 이 올해 6월 개통
-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국제여객기 (비정기) 의 발착 수는 매년 여객시 수 500, 승객 수는 5년 동안 (2001-2005년) 대략 30 배 증가했다.

### 3. 최근 중국, 한국과의 교류

#### (1) 활발한 교류내용

- 한국 수원시, 중국 하얼빈시에 경제교류단을 파견
- 한국수원시장공회의소와 아사히카와상공회의소가 자매협정 결연
- 한국수원시, 중국 하얼빈시에 시찰단과 기술연수원을 파견
- 한랭지역 고령자 주택건설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수생 교육
- 전세기편으로 “아사히카와시민 친선의 날개” 중국방문단을 파견하여 하얼빈시를 방문하여·자매도시 결연 15주년 기념하고 한국 수원시에서 일본요리제 개최
- 아사히카와하얼빈우호협회와 하얼빈시민대회우호협회의 교류의향서 서명
- 자매도시 결연 10주년을 기념하여 하얼빈대표단과 대형 시민방문단 초청
- 하얼빈시민과 공동으로 국제빙설예술박람회와 중일빙설문화제 개최
- 포럼관광대신 회의기간에 교류초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교류 업무를 전개

#### (2) 중국·한국유학생 수 (1989-2005년 누계)

중국 130 명      한국 35 명

### 4. 포럼교류를 추진하여 동북아지역의 번영과 평화 추진

#### (1) 전세계 공생의 시대

- 21세기는 다른 역사, 문화, 가치관을 가진 지역 (국가) 공생의 시대로 소위 “전세계 공생의 시대”이다.
- 이러한 시대에 처하여 실크로드와 같이 인류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교류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지역만이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풍부한 문화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여 신가치관을 창조하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.

#### (2) 지방정부의 역할

- 각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발전을 추진할 역할 및 책임을 갖고 있으며 “전세계 공생시대”에 처하여 이러한 교류의 강화는 더욱 더 중요해졌다.
- 이에 포럼 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신시대의 인재교류를 전개하여 미래를 위한 확실한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.

### 5. 결론

- 다행하게도 포럼 3국은 유사이래 각 영역에서 교류를 전개해 나갔으며 그로 발생한 많은 성과가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.
- 향후 지방정부와 민간교류의 한결음 더 나아간 강화를 통해 3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국제적인 경제발전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.

동북아지역의 번영이 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 주어 세계평화에 공헌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